

벌을 구하기 위한 싸움, 우리가 이겼습니다!

1 개의 메일

앨리스 제이 – 아바즈 <avaaz@avaaz.org>

2018년 5월 3일 오후 7:48

받는사람: "ssinkj@gmail.com" <ssinkj@gmail.com>

대단한 아바즈 커뮤니티의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벌을 죽이는 살충제 사용이 유럽연합 28개국 전역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바즈 커뮤니티가 너무도 자랑스롭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수백 개의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아바즈를 오늘 이 승리의 “기폭제”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을 구할 결정적 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가 금지되면서, 관련 업계는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농업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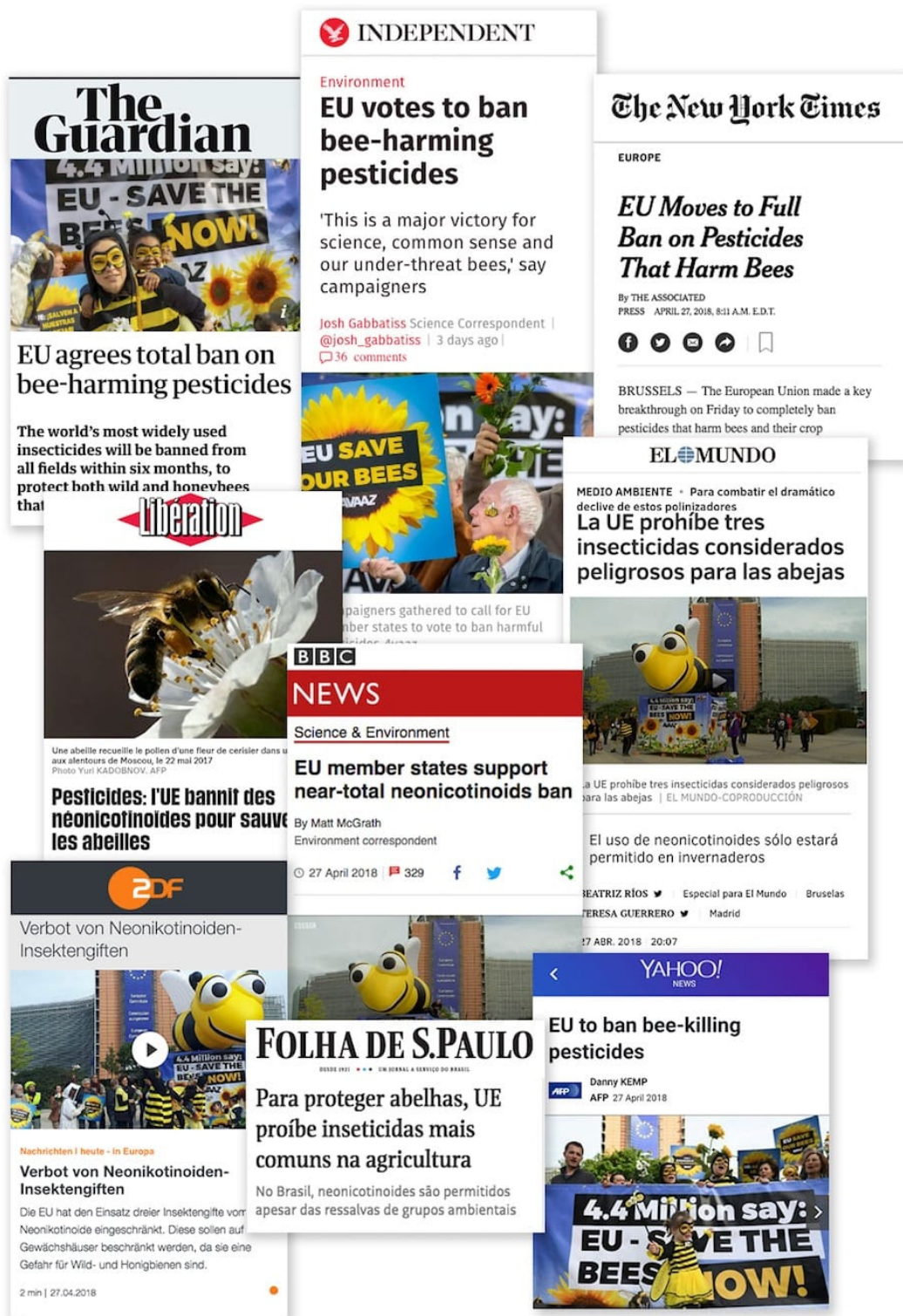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 최대 화학기업들에 맞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캠페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5백만 명이 참여한 강력한 청원을 전달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가 하면 공항 활주로나 지 장관들을 뒤쫓았죠.

그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싸워 왔는지, 여기 그 치열한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승리를 전 세계의 승리로 만들어 볼까요?

사상 최대 규모의 벌을 위한 청원을 끌어냈습니다

-- **5백만 명이 뭉친 힘!** 이 청원을 꿀벌 버니스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5미터 키를 가진 아바즈의 마스크트 버니스는 주요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세계 전역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은 스타죠.



주요국 당국자들은 금지안에 찬성하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요! 특히 지난 몇 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진 나머지, 독일과 스웨덴은 관련 부처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키프로스의 장관은 아바즈 회원 니콜라스에게 직접 답글을 남기기도 했죠.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수렴 통로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금지안에 관해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소한의 의견만 제기되면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죠. 그러다 아바즈 회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일 만에 제출된 의견 수가 9000건에서 66000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된 날도 있었죠. 집행위원회 담당자는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본 사안에 관해 애쓰고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금을 통해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의사결정자들에 제시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가 화학기업들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반대하며 15만 명에 달하는 아바즈 회원들이 25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벌을 살리는 캠페인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힘을 모아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했고, 연구 결과를 주요 관계자들이 투표 전에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연합의 공식 과학 기구인 유럽식품안전국(EFSA)이 금지안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죠.

영국 서섹스대학 생물학과 교수인 데이브 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요일 투표는 과학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바즈 회원들은 이날이 있기까지 자신이 한 일에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금지안을 찬성하는 농부들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에 전했습니다

금지안 논의를 지연시킨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금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즈 직원들은 금지안 찬성 농부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유기농뿐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함께 모였죠. 그리고 투표를 지연시키려는 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해, 벨기에의 라 리버 지부터 스웨덴의 다겐스 니에테르 지까지 유럽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농업조합도 합류했죠!

스코틀랜드의 농부 엘리슨 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미래는 농업의 생존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는 벌과 곤충의 생존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승리를 위한 열쇠는 당국자들이 금지안을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당 업계가 논의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융커에게 "벌의 남자"가 되겠다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캠페인 청원](#)을 전달하고, 브뤼셀을 기반으로 한 유력 정치 미디어를 광고로 도배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자, 보건 담당 집행위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직접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아바즈 회원들과 함께

말이죠!!



Vytenis Andriukaitis ✓

@V_Andriukai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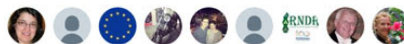
Follow

Plenty of lovely bees at #Schuman today. 🐝
Happy that Member States voted in favour of
our proposal to further restrict the use of
active substances #imidacloprid
#clothianidin #thiamethoxam known as
#neonicotinoids !
Vital for #Biodiversity #FoodProduction
#Environment 🌍🌍🌍



10:54 AM - 27 Apr 2018

149 Retweets 274 Likes



Eric Andrieu,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 and 4 others

8 149 274

금지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프랑스

이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건 2011년이었습니다. 백만 명의 아바즈 회원들이 프랑스에 과감하게 벌을 죽이는 살충제 사용 금지에 앞장서도록 목소리를 높였을 때였죠. 우리는 계속해서 프랑스가 리더십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의 꿀벌 챔피언, 니콜라 울로 환경부 장관이 나 타났죠. 울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금지를 위해 유럽 전체를 무대로 벌인 이 격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두에서 싸워 왔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 울로는 말했습니다. "벌들에 너무도 좋은 소식입니다. 동시에 인류에 좋은 소식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시민들이 결연히 일어서 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

독일

우리의 다음 목표는 독일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지난 수 년간 아바즈 회원들은 끈질기게 **농식품부 장관에게 금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장관이 무려 세 번 바뀌는 동안에요!** 어느 시점에는 농식품부에서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요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우리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금지안 찬성을 요구하는지 농업 및 환경 부처 장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독일이 마침내 금지안을 지지했거든요!**

영국

영국은 지난 몇 년간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전 환경비서관이 아바즈 회원들의 메시지를 "**사이버 공격**"이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해 아바즈와 협력 단체들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인 뒤, 영국은 **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간 어떤 사안도 이번만큼 의원들과 유권자 사이에 메시지가 오가도록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위 세 나라가 금지안 찬성 편으로 돌아선 이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나라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았죠...

투표에서 이길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두 나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여론조사를 통해 87%의 스페인 국민과 78%의 이탈리아 국민이 금지안에 찬성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 주요 일간지인 **엘 문도**와 **일 솔레**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장관들에게 메시지 세례를 퍼붓고, 농부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 매일 정치인들과 당국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투표 당일 아침까지도요. 마드리드에 있는 한 내각 관계자에게는 스페인이 찬성 표를 던졌다는 소식을 아바즈 직원이 전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바빠 뛰어다녔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스페인의 국회의원 후안 로페스 데 우랄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일어나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그리스, 폴란드, 그 외 나라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네덜란드

투표를 불과 몇 주 앞뒀을 때, 네덜란드에서는 아바즈 회원 세 명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순식간에 입소문이 나,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열 명을 비롯해 두 전직 장관, 심지어 **공주까지** 지지를 표명했죠! 그리고 우리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8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금지안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캠페인 결과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을 때, 장관은 서명자 수가 적힌 판을 "복도에 걸기 위해" 잡았습니다! 마침내 투표 이틀 전, 네덜란드는 금지안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그리스

그리스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우리의 대규모 청원 결과를 그의 고향에서 생산된 유기농 벌꿀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아바즈 회원들이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과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죠. 투표 전날, 우리는 구독자가 가장 많은 일간지 일면에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관과 통화하기 위해서요.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투표가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장관은 비행기에서 막 내리려던 참이었고, 우리는 이 투표 결과가 그리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즉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와 유럽 전역의 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너무도 크고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 반젤리스 아포스톨루, 그리스 농식품부 장관

“5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벌을 죽이는 살충제 금지를 요구하며 참여한 아바즈의 글로벌 운동은 이번 결정의 기폭제였다.”

-- Efsyn – 그리스 중앙지

투표까지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13개국이 금지 찬성 편에 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진 못했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캠페인을 벌인 나라들이 거의 모두 찬성 표를 던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브뤼셀 거리로 벌떼처럼 몰려나와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번 승리가 있기까지, 수 년 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PAN, 그린피스, 지구의벗, SumOfUs와 같은 단체들도 아바즈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훌륭한 과학자, 양봉인, 정치인 및 당국자들과도 손을 맞잡고 협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축하합니다. 이번 결정은 **살충제에 기반한 집약적 농업에서 생태 기반의 새로운 농업 모델로의 대전환**을 의미할지 모릅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모델이요.

그렇지만 마냥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비슷한 논의가 오갈 예정인 미국과 캐나다로 이번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바이엘과 신젠타 사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도전을 하려 하니까요! 사막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소중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바즈는 이 같은 싸움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그리고 영리하게 싸움에 임한다면 각국 정부가 공공의 선을 수호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캠페인이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맙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다음 싸움을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랑과 기쁨을 담아,

앨리스, 안토니아, 엠마, 릭켄, 리사, 이안, 넬, 파스칼, 닉, 카밀, 프란체스코, 다니엘, 렌, 루이스, 오스카, 스피로, 줄리, 마리, 올리비아, 조셉, 닉, 미아, 그리고 아바즈 팀 전체

벌의 승리와 아바즈 캠페인에 관해 다룬 기사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여기](#) 극히 일부를 소개합니다.

꿀벌은 '인류 존망 풍향계'... EU, 대표적 살충제 퇴출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7069

꿀벌은 '인류 존망 풍향계'...EU, 대표적 살충제 퇴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061200009.HTML?input=1195m>

EU 회원국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금지 지지 (BBC-영문)

<http://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43910536>

EU, 벌에 해로운 살충제 전면 금지 추진 (뉴욕타임즈-영문)

<https://www.nytimes.com/aponline/2018/04/27/world/europe/ap-eu-europe-bees-.html>

EU, 벌에 해로운 살충제 전면 금지 합의 (가디언-영문)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apr/27/eu-agrees-total-ban-on-bee-harming-pesticides>

EU, 벌에 해로운 살충제 금지안 표결 (인디펜던트-영문)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bee-harming-pesticides-eu-ban-vote-environmental-threat-harm-latest-news-a8324981.html>

Avaaz.org는 4,500만 명 회원의 글로벌 캠페인 네트워크로 세계인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세계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바즈는 많은 언어권에서 "목소리" 또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아바즈 회원은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바즈 팀 또한 18개국과 6대륙에서 17개의 언어로 활동합니다. 잘 알려진 아바즈 캠페인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통해 아바즈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3-12-17일자, ssinkj@gmail.com라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커뮤니티 청원서 사이트" 캠페인에 서명하신 순간부터 아바즈 운동의 회원이 되셨기에 이 이메일을 받고 계십니다.

아바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avaaz@avaaz.org를 주소록에 저장해주시겠습니까? 이메일 주소, 언어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https://www.avaaz.org/kr/contact/>를 클릭하시고 수신거부를 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아바즈에 연락하시려면 이 이메일에 답변하지 마시고, www.avaaz.org/kr/contact에서 메시지를 작성하시거나 +1-888-922-8229 (미국)으로 전화해 주십시오.